

샬롬! 예루살렘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시지요?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들의 기도서신을 받아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생업 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언제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한해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동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올 한해 주안에서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또 영적인 동역자로서의 중보의 끈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중보할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이야기 또 기도제목 함께 나눕니다.

### ■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이스라엘에 산다는 것은 종종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2017년 새해를 맞는 1월 1일 새해 첫날, 유대력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날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누구를 만나도 신년 인사를 건넨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새해(2016년 10월 3일)는 이미 몇 달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변의 이웃들과 지인들에게는 성탄 인사도, 새해 인사도 나누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끝자락에 성탄절이 있었지요. 이번 성탄절이 저희들에게 있어 조금은 더 특별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만남의 시작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요압 아저씨와 야곱에게 성탄 케익을 전하고 또 인사도 드릴 겸해서 방문했지요.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G.T.I 사역을 통해 만나게 된 '요나트' 자매였습니다. 요나트가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늘 올 수 있으면 오라고 초대해 해 주었습니다. 저희야 너무 감사하게 응했지요. 그리고 방문해서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요나트'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서 앞으로도 계속 만남을 갖고 또 교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발전되어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라는 바 또 하나의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요나트' 자매와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 G.T.I 사역 이야기

요즘은 매주 G.T.I 사역 나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또 즐겁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는 분들이 계셔서 인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또 마음의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협력(協力)**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풀어 봅니다. 협(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힘들이 모아지면...), 력(力) 보다 더 큰 힘으로 작용한다.) 혼자 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더 나은 그 이유를 요즘 현장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도' 아저씨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만큼 참으로 오랜만에 갖는 재회였습니다. 아저씨를 만나며 예전 키보츠 봉사 활동 시절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그 때의 경험들이 제게는 참 소중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땅과 이 땅의 영혼들 특히 유대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코리엘; **Koriel**)를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와 관련된 본격적인 준비와 실행이 올 한해 이뤄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만남과 지혜와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베두원 마을 이야기

지난 성탄절은 사역의 대상에 있어 저에게 땅 끝 민족, 베두원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 각 가정마다 방문하여 케익을 전하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마브룩 이싸'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외치며 함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그들의 메시아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믿고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해서 크게 거부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성탄의 의미를 특별히 알고 이해해서 외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 축하해요'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 사실 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고백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날이 속히 오기만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서 만나고 또 교제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아뢰어 주십시오.



한국에서 온 성탄선물



성탄절 전날 목자들의 들판에서



동행하는 자들



'이도' 아저씨와 함께



'요나트' 가족과 함께



'이샤이' 생일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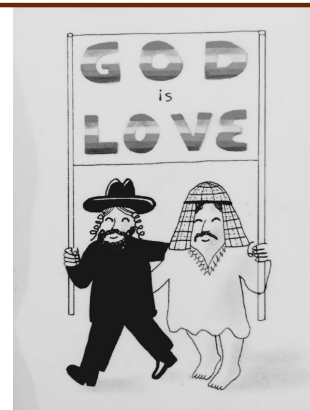


마브룩 이싸

## 「 기도제목 」 “ Love One Another ” (John15:12)

1. 보내신 자리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2. 새로운 만남(요나트 가정)을 좋은 관계 속에 이어가며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3. 2017년 코리엘(Koriel) 사역이 현장 가운데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4. 1월 중순, 2월 초순에 현장에 방문하게될 늘사랑 팀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5.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아이들 비염)하게 이 계절(우기)을 보낼 수 있도록
6. 현장 사역과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가장 적합한 Status(비자문제)가 마련 되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온)
- 외환(하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 프로젝트
- 외환(하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 연락처 」

※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Rev. JAESUK JUNG

※ 연락처 :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CP123456789KR)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